

노량진(오전)	6시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동 우 컬럼

꿈을 가져라

지난 설날에 목포에 사는 손자 녀석들이 인사차 집에 들렸다. 세배를 받은 후에 나는 그의 아버지 송직화 목사에게 “찬영이를 데리고 서울대학교에 가라. 가서 캠퍼스를 보여줘라.”고 했다. 찬영이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송직화 목사의 장남이다. 송목사는 내 말대로 찬영이를 데리고 서울대학교를 둘러보고, 인증샷을 내게 보내왔다. 그런데 목포에 내려간 찬영이가 내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 “할아버지, 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갈 거예요.” 나는 너무 반갑고 고마워서 “그래, 찬영아. 너는 할 수 있어, 열심히 공부해라.”고 격려했다. 이것이 내가 원하던 바다. 나는 꿈을 갖게 해주고 싶었다.

클린턴 전(前)미국 대통령이나 반기문 전(前)유엔 사무총장이 학창시절 케네디 대통령을 만난 후에 꿈이 생겼다고 했다. 나 역시 세계적인 목사 빌리 그레함과 라인하르트 본케의 백만 명 집회 영상을 보면서 ‘나도 백만 명 앞에서 설교하리라’는 꿈을 가졌다.

꿈을 꾀야 꿈을 이룰 수 있다. 꿈을 꾸지 않는데 무슨 꿈을 이루겠는가. 어떤 사람들이 늘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꿈에 “이놈아, 복권을 사놓고 기도해야지, 사지도 않고 무슨 당첨되기를 바라냐?” 했다 하신다. 과녁이 있어야 총을 쏠 것 아닌가. 과녁이 있어야 활을 당길 것 아닌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창12:1~2)고 꿈을 주셨고, 모세를 부르실 때도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출3:10)고 먼저 꿈을 주셨다. 33년 전 즈음, 하나님은 내게도 “명성(名聲)”이라는 꿈을 주셨다.

꿈을 가져라. 꿈이 생기면 뛰게 되어 있다. 꿈이 생기면 부지런을 떨며 노력하게 된다. 성경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히6:11~12)라고 하신다. 꿈을 가져라. 그것이 꿈을 이루는 시발점이다.

최선을 다해 배우라(Do your best to study)

지난 3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노량진 교육관에서 2022학년도 예수중심제자신학원 입학 및 개강예배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총회장 목사님은 일생일대에 가장 귀한 결단을 내린 선지생도들을 격려하며 말씀을 전하셨다.

“나의 성공 키워드(key word)는 바로 ‘최선’이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눅16:10)는 이 말씀이 내 목회 철학이요, 목회 신조다.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38년 동안 작은 일

그러나 1년 뒤, 3년 뒤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어떤 자는 큰 진보를 이루게 될 것이나 어떤 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뱅뱅 돌고 있을 것이다. 전자는 최선을 다한 자요, 후자는 대충이런 군에 감염된 자다. 대충이런 군을 잡지 않으면 그 군으로 인해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지게 된다. 나태함, 게으름을 버리고 배우는데 부지런을 떨어라. 땅을 깊이 파면 언제 어디서든 물은 나오게 되어 있다. 대충 파니까 안 나오는 거다.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간수만 나오고 마는 거다. 최선을 다해 끝까지 파면 사

님은 365번 진실되라고 강조, 또 강조하셨다. 거짓말의 아버지는 마귀이기 때문이다. 그런 자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리 없고, 그런 자에게 시온의 대문이 열리겠는가. 나는 거짓말하는 자를 제일 싫어한다. 알면서 속아줄 뿐이다. 누구나 실수한다. 그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숨기려고 거짓을 말하는 것은 큰 죄다. 큰 자가 되기 전에 먼저 깨끗한 자가 되자. 넷째, 조급하지 마라. 조급해서 잘 되는 것은 없다. 걸려 넘어지고 실수만 하게 되니 매사여유를 가져라. 서두른다고 빨리 되는



이든, 큰일이든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가 오늘날의 예수중심교단이요, 나 자신이다. 최선이 뭐냐? 선택과 집중이다. 내가 선택한 것에 올인(all in), 집중하는 것이 최선이다. 여러분들은 큰 결단 내리고 이 제자신학원에 입학했다. 선택은 끝났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선택한 것에 집중해야 한다. 신학도로서 배우는데 집중해야 한다. ‘Do your best to study.’ 배우지 않는 자에게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If you don’t study, you have no future.’ 최고가 되려면 최선을 다하라. ‘Do your best to be the best.’ 성공은 노력한 자들이 따는 열매요, 노력한 자들의 면류관이며, 노력한 자들이 받는 영광이다. 대충, 얼렁뚱땅하는 자들에게 성공은 그림의 떡이다. 오늘 입학한 생도들의 시작선은 동일하다.

막에도 생수는 터지게 되어 있다. 항상 최선을 다하라. ‘Always do your best.’ 미래는 운명이 아니다. 미래는 내가 만드는 작품이다. 최선을 다한 자는 아름다운 걸작을 만들어낼 것이다. 나는 오늘 입학생도 중에서 제2의 이초석 목사가 나오기를, 아니 이초석 목사보다 더 큰일 하는 사람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소원한다. 그러려면 나를 본받아 매사 최선을 다하라. ‘Do your best in everything.’ 둘째,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명예, 미모가 아니라 인격이 판단한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언행을 바르고,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품행을 단정하게 하라. 가치가 높은 물건이 비싸게 팔린다는 것을 알아. 셋째, 깨끗한 자가 돼라. 깨끗한 자는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보증수표와 같다. 하나

게 아니라 아구까지 물이 차야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범사에 기함과 때가 있음을 알고 여유를 갖자. 다섯째, 인맥의 중요성을 알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잠11:30)고 말씀하셨다. 인맥형성은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되어 확산해 나간다. 그러므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인정받는 자들이 되라. 그들이 너의 날개가 되어줄 것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오늘의 각오를 끝까지 지킨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주의 종이 될 것이라 나는 믿는다.”

신묘수 전도사

우크라이나를 도움시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695001-01-110736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요15:13~16)



진정한 친구는 어둠 속의 빛과 같은 존재다

“슬라바야, 힘내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우리 교회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걱정 마라. 종전이 되면 바로 내가 들어간다. 가서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울 것이고, 너희의 장래도 해결해줄 것이다. 힘내!”

저는 매일 우크라이나에 있는 슬라바 목사에게 문자로, 때론 전화로 이렇게 말해줍니다. 슬라바 목사는 문자로 ‘하나님이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는다.’고 했습니다. “물론이지. 그러나 내 기도만 들으시겠냐? 너의 절박한 기도도 듣고 계시니 걱정마라.”고 격려와 힘을 줍니다. 요즘 저는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슬라바 목사, 그리고 세미나에 동참했던 많은 목회자들은 우리의 동지요, 친구입니다. 그들은 지금 성경 대신 잡아보지도 않던 총을 들고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생사를 알 수 없는 자들도 많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만큼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사막에서는 오아시스가 생명이다

여러분들은 물론 땅끝예수전도단 회원들도 모두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작은 물질이 그들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만난 한 줄기 빛과 같은 겁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과 같은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낯느니라”(잠17:17). 부디 우크라이나에 종전이 될 때까지, 그 후 재건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해주십시오. 여러분, 어려울 때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고난 중에 문득 생각나는 친구가 참 친구입니다. 슬라바 목사가 전쟁 중에 저와 우리를 생각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동지가 있습니까? 벌써 25여 년 전의 일입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이 불쑥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제3한강교를 거닐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병들어서 이제 얼마 못살 것 같네. 자네가 내 아내와 자식을 맡아주게.” 밀도 끝도 없는 그의 말에 저는 적잖게 놀랐습니다. 그는 “지나날, 내 동생 대학입학금을 대준 것도 자네였고, 내가 취업할 때 보증금 서준 것도, 병원비를 대준 것도 자네였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네밖에 내 가족을 맡길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자네 찾아왔네.”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그에게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친구 예수를 소개해주고 집에 돌아왔는데, 밤이 깊도록 심란하여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원을 거닐며 ‘나는 과연 세상을 하직할 때 내 가족을 맡길 사람이 있는가?’ 하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그럴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진정한 친구를 얻기에 힘썼습니다. 지금은 제게 저를 위해 생명보다 귀하다는 물질을 아끼지 않을 친구, 위기가 왔을 때 저를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을 친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동지요, 동역



총회장 이초석 목사

자로, 그리고 친구로 제 곁에 있습니다. 큰 자산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둠 속의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그랬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대를 이어 왕위에 오를 왕세자였기에 어쩌면 요나단에게 있어 다윗은 정적 같은 존재였을 수 있었습니다. 전쟁마다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두터워만 갔습니다. 오죽하면 사울이 다윗을 감싸는 요나단에게 노를 발하며, “패역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삼상20:30~31)고 했겠습니까?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길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아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미리 알려주어 피신케 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어려움에 직면하자 더욱 깊어져 ‘서로를 자기 생명처럼’ 귀히 여기게 되었습니다(삼상20:17). 다윗은 요나단이 블레셋 전쟁 중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함께 전사하자

애가(哀歌)를 지어 애도했고, 후에 생존한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에게 그의 조부모의 재산을 돌려주고 그를 자신과 한 상에서 먹게 하였습니다(삼하9:13). 여러분,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떨어질 때야 비로소 나뭇가지가 보이는 것처럼, 우정은 위급할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도왔던 37명의 용사처럼, 또한 바울에게 있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위급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 그런 급난지붕(急難之朋)이 내 인생에 하나쯤은 있어야 합니다.

“나 친구 많아.” 하십니까? 글썽요. 제가 세상에 있을 때 친구가 참 많았습니다. 저와 친구가 되려고

난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시작하니 친구들이 하나둘씩 떨어져나갔습니다. 더욱이 제가 망했다는 소문이 돌자 행여 얼굴이라도 마주치면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저를 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 때문에’ 친구였지요. 제가 돈이 많기 때문에 친구였던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 때문에’가 아니라 ‘~ 불구하고’의 친구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망하고 괴로움 중에 있어도 불구하고 여전한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요15:15)고 하셨습니다.

그 친구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꺼이 도와주시는 급난지붕(急難之朋)이며, 더욱이 친구인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는 문경지교(刎頸之交)인 분입니다. 우리의 허물로 인해 그 친구가 필

립을 당했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 친구가 상하셨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라고 그 친구가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를 병에서 낫게 하시려고 그 친구가 채찍에 맞았습니다(사53:5). 또한 그 친구는 우리가 힘들 때 기꺼이 우리를 도우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시50:15). 공동번역에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나를 불러라. 구해주리라.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병들어 있어서, 우리가 가난하기에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말입니다. 이런 친구를 만난 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 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심에 감사, 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잘 살펴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우정도, 베풀도, 용서도 가진 자의 몫입니다. 가진 자가, 있는 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친구로 칭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요15:16).

진정한 우정은 어려울 때 나타난다

너무나 부족한 우리를 주님이 친구라 칭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친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 뒤로 쫓겨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지 않아도 복음의 열매가 절로 맺히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요15:16).

다시 말하지만, 진정한 친구는 어둠 속에 비치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가 진정한 친구요, 목마를 때 한 잔의 생수 같은 것이 친구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됩시다. 나로 인해 누군가 힘을 얻고, 누군가 소망을 얻고, 누군가 목숨을 건질 수 있다면 그보다 값진 일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15:13).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교단소식 ::

분열의 시대를 마감하자

각 나라마다 국민성이 다릅니다. 일본인들은 찰흙과 같아서 개인은 약한데 뭉치면 강하고, 한국인은 자갈과 같아서 개인은 강한데 뭉치지 못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국민성은 단결인데 반해 한국의 국민성은 분열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공감은 되었지만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우리나라의 분단과 분열의 역사를 살펴보면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삼국으로 갈라져 오랫동안 전쟁을 치렀고, 조선시대에는 노론, 소론, 남인, 북인으로 사색당파를 이루고 허구한 날 정쟁만 일삼다가 임진왜란으로 임금이 궁궐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는데도 그곳에서도 당리당락을 위하여 이전투구를 벌였다고 합니다. 해방 이후에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이데올로기의 극한 대립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기도 했습니다.

전후에는 선거 때만 되면 지역주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보수와 진보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대립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젠더갈등이 심화되고 고용주와 근로자, 기성세대와 신세대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목회자와 장로들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불쌍사나운 일들이 비밀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대남(20대 남성)과 이대녀(20대 여성)의 갈등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아름답게 보시고

기뻐하시지만 악한 마귀는 분열시키고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이제는 분열의 시대를 마감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대결의 구도로 가면 공멸하지만 상호 협력의 구도로 가면 공생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닌데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비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지만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들이란 생각이나 취향의 차이이지 절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억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해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완벽한 제도도 없으며, 온전한 지도자도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먼지가 보이면 조용히 행주로 훔쳐내면 될 터인데 먼지떨이로 요란스럽게 먼지를 떨어내니 결국은 그 먼지를 자신이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선거 상대방은 악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용서만이 깨어진 관계를 붙일 수 있는 접착제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4:12). 요란한 정치 이슈들이 사라지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아름다운 미담들로 신문 방송이 가득 채워지는 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상화평 목사

:: 세상을 보는 창 ::

내일이면 늦으리

언젠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다.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는데 이발소 간판에 ‘내일은 공짜!’라는 글을 보았다. 너무 놀라서 몇 번이고 눈을 의심하며 다시 보고 다시 봐도 ‘내일은 공짜!’ 얼마나 놀라운 안내 간판인가. 그 간판을 보고 다음날 룰루랄라 하며 이발소를 찾아 이발을 다하고 황당한 경우를 맞게 되었다. 이발 비용으로 10불을 내라는 것이다. 너무 어이없어서 ‘어제 분명히 밖에 있는 안내 간판을 보고 왔노라며 화를 냈다. 이발소 주인이 다시 밖에 나가 보라고 했다. 여전히 그 간판은 서 있었다. ‘내일은 공짜.’ 그리고 보니 그 옆에 보일 듯 안보일 듯 쓰여 있는 가격표도 있었다. “오늘은 10불!” 실제로 이렇게 비즈니스를 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만들어진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내일을 헛되이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약4:14).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다. 그것은 닦아낸 황금, 소금, 지금이다. 그중에 무엇이 가장 가치 있었는가? “뉘니 뉘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하면서 황금이 최고라고 꿈을 사람이 적지는 않았지만, 꿈금이 생각하면 지

금이 가장 가치 있다. 지금(present)은 최상의 선물(present)이다. 성경의 선언이 그것을 분명하게 해준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고후6:2).

여리고 성에 소경 거지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바디매오다. 그는 오늘이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날 그는 사람들이 지나가며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그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소리쳤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방해도, 어떤 장애물도 오늘이라는 기회를 붙잡으려는 바디매오를 막을 수 없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셨고 고쳐주셨다.

다 똑같이 24시간이라는 놀라운 기회를 담은 오늘을 사는데 그것을 매일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내일 해도 되잖아?”, “나중에 해도 돼!” 오늘을 막는 장애물 앞에 바디매오처럼 더욱 전투력을 가지고 해보자.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은 사용해야 오늘이다. 그렇다! 오늘이다. 내일이면 늦으리.

이정금 전도사
jungkm@nate.com

개선과 불평은 다르다



3월 10일, 총회장 이초석 목사님은 노랑진 교육관에서 서울을 비롯한 인천과 경기 일원의 교역자들을 교육하셨다.

“익명을 요하는 어떤 전도사가 문자를 보내왔다. 이시대 목사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교육하며 당부한 내용이 불합리하다라는 내용이었다. ‘전도사는 담당 기도처에 무조건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머물러야 한다’는 이시대 목사의 당부가 너무 일방적이라며 개선해줄 것을 내게 요구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수용했고, 이를 바로 잡아주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

그 전도사 말이 불평은 아니다.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이시대 목사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 제한한 것이라면, 이 전도사도 불평이 아니라 약간의 개선을 요청한 것이니 그렇다.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 아니겠는가(잠27:6). 나는 언제나 열린 귀를 가지고 있으니 언제든지 건의해도 좋다.

다만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시대 목사가 왜 여러분에게 그런 제안을 했을까 생각해보라는 것이다. 자고로 믿음이 떨어지면 오해가 나는 법, 이시대 목사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기도처에 있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 줄어든 인원을 다시 원상회복하고자 기도하고 애쓰다보니 나름 방법을 찾아 발표한 것이다.

내가 우크라이나에서 피를 토하며 복음을 전했기에 우크라이나에 남다른 감정을 갖듯, 이시대 목사 역시 서울교회 담임으로서 그러지 않겠나. 성전의 빈자리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시렸겠는가. 얼굴이 뜨겁다고 하더라. 융통성과 신축성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교회를 다시 원상복귀하고 나아가 진보까지 생각한 이시대 목사의 간절한 마음과 진의를 이해해야 한다.

나는 오늘부로 그제안을 해제한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방법에 신축성을 준 것이지 이시대 목사가 주장하는 코로나 이전으로의 원상복귀라는 목표를 없앤 것이 아니니 모두가 맡겨진 일에 전념하기 바란다. 성공은 미술이나 눈속임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

역지사지(易地思之)하면 이해 못 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한 가지 목표, 교회부흥을 위해 우리 모두 전심전력하자.

신묘수 전도사

:: 생명의 말씀 ::

갈등의 역설적 기능

K-뮤직, K-드라마가 전 세계에 한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어찌 이리 뛰어난지, 무슨 원인이 있는지, 어느 평론가가 말했다. 한국사회의 갈등상황 때문에 우리 민족이 뛰어난 문화적 깊이를 갖추게 되었다고. 빈부 간의 갈등, 진보와 보수, 사회구성원끼리의 갈등 등, 다른 나라의 국민보다 훨씬 많은 갈등상황에 부대끼고 산다. 모르는 사람을 보면 ‘하이’로 눈인사하는 외국의 분위기가 우리나라에는 없다. 눈을 쳐다보면 짜려본다고 시비가 벌어지고, 청소년 시절엔 ‘눈깔아!’라며 욕박지른다. 서로가 적대적이고 경쟁적이다. 그래서 그런 갈등 속에서 내면이 깊어진다는 역설이다. 소설의 깊이는 작가의 인생이 어땠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치열한 삶과 고통과 문제의식이 뛰어난 작품을 만들게 한다. 시련과 환난, 갈등이 깊이 있는 소설가, 음악가를 만들어낸다. 연마되고 다듬어지는 고통이 그런 순기능을 이뤄낸다.

내게도 시련이, 고난이 나를 바닥으로 밀어 내렸고,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셨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 시련과 환난에 굴복하면 깊은 상처만 남게 되지만, 극복했을 때는 더욱 영적으로 깊어지고 강해진

다. 항상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감당할만한 시험만을 허락하신다.

역경에 처한 자, 갈등 속에 있는 자, 삶에 찌들고 괴로운 자여, 모든 시험과 환난은 당신을 정금 같이 만드는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다. 지지 말고 낙담 속에 절망하지 마라. 반드시 역전의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인내가 성령의 귀한 열매라고 하는 것이다.

암 환자들 중 많은 경우는 두려움 때문에 상황이 악화된다. 식욕이 없어져 영양실조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다. 암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다. 내 가장 큰 간증은 힘든 세월 속에서도 두려움보다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이다. 주님은 역전의 명수시고 역설을 강조하셨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다.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다. 갈등과 시련, 고통이 너를 더욱더 주께로 나아가게 한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 이것을 믿어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이다. 승리하시라, 모두! 예비된 영광을 위해. 할렐루야!

이광주 목사

영혼의 다이어트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민수기 9:8). 많은 이들이 건강과 미용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지만 작심삼일, 요요현상 등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힘들더라도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교만과 허풍, 허세 등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영혼에 기름덩이가 생겨 영적 비만에 걸립니다. 가져도, 가져도 더 가지려 하고, 먹어도, 먹어도 더 먹고 싶어 함으로 영적 비만에 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권력자들로 인해 세상은 슬픔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기도는 부풀어진 우리 인생에서 거품이 빠지게 하고, 허세와 허풍, 교만과 거짓을 내려놓게 함으로 저절로 영적 다이어트가 되게 합니다. 수시로 영적 다이어트를 통해 주님만 바라보는 건강한 영혼이 되십시오. 삶에는 참 다양한 일들이 일어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문제를 들고 온 백성들에게 모세는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기다리라, 들으리라” 합니다.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일단 멈추어 서서 주님의 뜻을 들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나 고집이나, 혹은 내가 정한 원칙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기

도하는 시간이며, 분별하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듣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자신의 방법으로 결정하고 나서 기도합니다. 운전자가 교통법규대로 운전할 때 자유롭게 주행할 수 있듯이 우리는 주님 안에 늘 거하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영원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알아도 그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영적 비만에 걸릴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져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동경예수중심교회 김경숙 목사

코로나19사태의 종식을 위해 다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 From Internet ::

개보다 못해서야

1930년대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다. 동경 제대 농학부에 재직 중인 우에노 교수는 순종 아키다라는 개 한 마리를 길렀는데, 이 개는 영특함이 남다른 데다 또한 유난히 교수를 잘 따르기로 유명하였다고 한다. 교수는 아키다 현에 살기 때문에 동경 제대까지 출퇴근을 하려면 매일 시부야 역에서 동경까지 기차로 오가야 했는데, 이 개는 매일 아침과 저녁, 시부야 역까지 교수의 출퇴근길을 함께하였다. 아침에는 배웅을 나가고 저녁에는 마중을 나오는 개의 모습이 너무도 영특한지라 아키다 현에서

이 개는 꽤나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수업 중이던 우에노 교수는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주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개는 그날도 어김없이 시부야 역으로 교수를 마중 나간다. 하지만 주인은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개는 다음 날도 나가서 교수를 기다린다. 다음 날도, 그다음 날도...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시부야 역으로 마중 나가서는 미동도 하지 않고 교수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무려 10년 동안... 10년이라는 세월의 흐름에 결국 개도 기력이 쇠하여 죽음을 맞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그 충직한 개를 기리기 위하여 동상을 만들어 주었고, 지금도 일본에 가면 그 동상을 볼 수 있다.

또한 이 이야기는 ‘하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소설, 영화, 드라마로 제작되어 큰 감동을 주었다. 사람이 개만도 못해서야 되겠는가! 충성(忠誠), 가운데 중(中)에 마음 심(心)이 합해진 것이 충(忠)이니 곧 진심과 정성이요, 말씀 언(言)에 이를 성(成)이 만나 성(誠)이니 역시 곧 진심과 정성을 뜻한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심과 정성을 다하는 자가 되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마24:45)라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요!”라고 외치는 목사님을 닮아보자.

예수중심편집실

:: 영생에 이르는 길 ::

NFT를 아시나요?

종종 뉴스 기사를 보다보면 ‘NFT’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이라는 단어로 디지털 자산에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하여 대체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암호화폐를 의미합니다. 요즘은 이 NFT를 활용하여 다양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만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NFT가 쉽게 이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쉽게 미술작품을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미술작품은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누구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가치는 천차만별로 어떤 작품은 몇 백억 원의 가치가 있는 반면, 어떤 작품은 작품이라고 하기에도 보잘 것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억 원의 가치가 있는 작품을 누군가 똑같이 복제한다면 그 작품은 가치가 떨어질 수

도 있고, 복제품이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사회에서 미술작품 복제는 너무나 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복제한 시간, 예를 들어 3월 7일 오후 4시 11분이라고 고유한 특성을 추가한다면, 그 이후에 복제한 작품과는 완전히 다른 작품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시간은 절대로 이전시간으로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NFT에서도 해당 작품이 생성된 시간을 고유한 특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NFT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이것과 아주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성장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없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신앙을 본받고 따라갈 수도 있고요. 또 마귀가 믿음이 지친 틈을 타서 훔쳐갈 수도 있습니다. NFT와 닮은 점은 우리 믿음의 체험은 하나님과

나와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오랜 시간동안의 기도로 소망을 이룬 그 기적 같은 일은 그 누구의 경험이나 논리로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의 NFT를 잘 투자한 투자자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는 “제가 주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주세요.”(왕하20:3)라고 기도했고, 병도 회복하고 15년이나 그 생명을 연장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의 체험을 하게 되면 영원히 대체 불가능한 우리 믿음의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우리 예수중심 성도님들도 하나님과의 대체 불가능한 믿음의 자산을 많이 만드셔서 영원한 천국의 안식으로 ‘떡상’하시길 바랍니다.

김대화

감사

며칠 전에 ‘기적을 만드는 감사메모’란 책을 읽고 크나큰 공감과 감동을 받았다. 삶에 불평이 가득했던 여성이 자기계발서를 1만 권 이상 읽고 하나같이 책에서 빠지지 않고 강조하는 것이 감사라는 걸 발견하고, 감사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사를 해야 함을 깨닫고 주변의 사소한 것부터 감사를 실천하니 그녀의 삶은 몰라보게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며, 이를 계기로 감사메모를 전 세계에 전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폭발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나는 딸에게 음식 주문전화가 오면 꼭 ‘감사합니다.’로 답례인사를 하게 했고, 배달기사님들에게도 같은 분이 10번 픽업하러 와도 10번 모두 ‘감사합니다.’ 하라고 교육시켰다. 딸아이는 “우리가 그분들 돈을 벌게 해주니까 그분들이 우리에게 감사를 해야지,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죠?”라며 처음에는 의문을 제시했지만, 내가 솔선수범을 보이자 어느새 ‘감사합니다.’로 자동전환 되어있음을 흐뭇하게 생각한다. 돌이켜보면 요즘 하루 중 내가 쓰는 언어 가운데 ‘감사합니다.’가 단연코 많았다. 위기 속에서도 연약함이 강함이 되어 감사라는 정금을 얻었음에 감사드린다. 이유 없이 감사해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감사를 해보자. 행복감과 웰빙 지수가 높아지고 나 자신에게 평화가 물려움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도 나는 감사로 일과를 시작한다. ‘오늘도 무사히 일어나서,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몸의 세포 기관들에게 감사하고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가 촉촉하게 내려 감사합니다.’, ‘줄게 느껴지는 것, 싫게 느껴지는 것, 모두 감사합니다.’, ‘이 글을 쓰게 해주신 하나님과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은혜에 무한 감사합니다.’

추성숙 집사

